

## 중앙아시아 국가의 탈소비에트 국민정체성: 동북아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嚴久鎬

- |                            |                        |
|----------------------------|------------------------|
| I. 서론                      | D. 키르기스스탄의 국민정체성       |
| II. 국민정체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       | E. 타지키스탄의 국민정체성        |
| A. 국민 연구의 근대주의적 접근         | F.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민정체성      |
| B. 국민 연구의 탈근대주의적 접근        | IV. 중앙아시아 국가의 자기정체성 분석 |
| III.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정체성의 특성   | A. 원초적 정체성             |
| A.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정체성의 공통적 특성 | B. 소비에트 정체성            |
| B.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정체성           | C. 전통적 정체성             |
| C. 카자흐스탄의 국민정체성            | V. 결론                  |

### 한글초록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몽고, 네팔 등 총 14개국을 설문조사 한 Asia Barometer 2005와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7개국을 설문조사 한 Asia Barometer 2006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정체성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중앙아시아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크게 근대주의적(modernistic) 관점과 탈근대주의적(post-modernistic)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연구는 근대주의 접근의 대표적 이론가인 겔너(Ernest Gellner), 스미스(Anthony Smith), 앤더슨(Benedict Anderson) 등을 중심으로 근대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타난 탈근대주의 접근을 부루베이커(Rogers Brubaker)와 알코프(Linda Martin Alcoff)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 한다.

또한 이 글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민형성 과정을 분석함과 아울러 근대화과정으로 여겨진 국민형성이 실상은 많은 갈등을 결과하고 있음을 보인다. 종족

\* 이 연구는 2010년 포스코 청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주의는 국가내 종족간 불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통적·정치적 가치관과 자원배분의 원칙에 의존함으로써 암암리에 씨족(clan) 족벌주의를 활성화한다. 도시의 지식인 계층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정부는 농촌 거주 명목민족(titular nation)의 지지를 자극하기 위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부활시키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Asia Barometer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정체성은 여전히 많은 제도적 유산을 안고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 중앙아시아, 국민정체성, 국가정체성, 민족주의

## I. 서론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민정체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많은 학자들이 민족주의 쇠퇴를 전망했지만 실제 그런 징후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종족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쇠퇴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부활을 보여준다. 민족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치 엘리트들이 여전히 그 구성원들을 위한 자연적 사회정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상상의 인척 공동체로서 국민국가(nation state)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국민국가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집단과 이와 부합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국가와 국민의 개념의 상호교차를 가리킨다.

안정적인 정치적 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을 만드는 문제는 탈소비에트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단절된 안보 불안,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현재의 혼란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가 없다는 정서를 이들에게 심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시절부터 자신들의 지침이 되었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소련 붕괴 후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족갈등의 견지에서 가장 고통 받는 남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정치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들 신생국들은 소련의 파편으로부터 출현했지만 많은 경우에 명확한 정체성이나 명확히 지각된 국민(nation) 없이 출현했다.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며 또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을 말한다. 국민정체성 판단에는 광범한 기준이 사용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특징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일부 특징이 이웃 국민들과는 다른 배타적 특성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생물학적이거나 원초적(primordial)일 필요는 없으며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국민정체성은 반드시 생물학적 기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 차원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웰란(Jennifer Whelan)은 심리적 실존주의(psychological essentialism)의 시각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근본적 성격 또는 본질의 견지에서 그들의 국민정체성을 구성하고 이 본질은 생물학적 유산(예를 들어 민족성) 또는 상징주의(예를 들어 국민적 상징과 아이콘)의 견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명제를 검증한 바 있다.<sup>2)</sup>

감정은 인간의 믿음, 가치, 행동, 집단형성, 사회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정체성은 정치적 감정들과 밀접히 연관된다. 국민이라는 집단은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 고려뿐만 아니라 감정적 연계에 의해 유지된다. 국민집단의 일체화(identification)가 국민성인 것이다. 사람들은 민족 집단과 국민을 인지하고 개인과 민족국민 또는 국민 공동체를 연결하는 감정적 연계를 통해 그것들을 위해 싸우도록 동원된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특정 감정과 수반되는 활동을 일으키기 위해 공동체의 감정적 성향에 현저한 감정에 호소할 수 있고, 대중들은 사건이나 지도자에 의해 제기된 감정적 레퍼토리 때문에 행동에 반응한다.<sup>3)</sup>

존스(F. L. Jones)와 스미스(Philip Smith)는 국민정체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1) Craig Young and Duncan Light, "Place, National Identity and Post-Socialist Transformations: An Introduction," *Political Geography*, Vol. 20, 2001, pp. 941-955.  
 2) Jennifer Whelan, "Essentialist Beliefs about National Identity: The Role of National Symbolis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SPP 31st Annual Scientific Meeting, Sciences Po, Paris, France, Jul 09, 2008. 호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녀는 상징적 실존주의가 더 강한 애국주의를 예견했고 반면에 생물학적 실존주의가 더 강한 민족주의와 이민자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더 많은 부정적 태도를 예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Ronald Grigor Suny, "Why We Hate You: The Passions of National Identity," Paper for the APSA Annual Convention, Philadelphia, PA, August 31, 2006.

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종족정체성(ethnic identity)과 유사한 귀속적 차원(ascriptive dimension)이고 둘째는 시민정체성(civic identity)의 개념에 더 가까운 자발적 차원(voluntarist dimension)이다. 이는 스미스(A. Smith)가 국민의 두 가지 일반 모형으로 제시한 종족적-계보적 모형(ethnic-genealogical model)과 시민-영토적 모형(civic-territorial model)과 유사하다.<sup>4)</sup> 구소련과 같은 비서구적 국민모형에서는 국민정체성은 시민선택(civic choice)라기 보다는 귀속의 문제가 된다. 서구에서는 법과 제도가 강조되는 반면에 구소련에서는 언어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강조되며, 상대적으로 가계와 혈통, 동원화, 자국어, 관습, 전통 등이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 연구는 귀속적 차원에서 자발적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앙아시아의 국민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국민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개념적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형성과정에서 국민의 범주는 정치적·문화적·도구적 근대화 에 의해 정해졌다. 한국처럼 단일 종족이 주도하는 국가였다면 국민정체성의 형성은 하위민족 정체성과의 충돌 없이 명칭민족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이다. 다민족 국가라 하더라도 중심민족 또는 명칭민족이 국민형성을 주도하기 때문에 영어 nation은 국민의 중심이 되는 민족이라 번역되어도 무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족은 자칫 근대적 의미의 국민이라기보다는 한민족과 같은 종족(ethnos)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근대적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형성을 주도하는 nation은 국민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나올 성 싶다. 국민정체성 형성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명칭민족이 주도하는 국민정체성이 하위민족 또는 하위국민 정체성과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루스키 정체성 또는 카자흐 정체성과 국가 통합의 견지에서 얘기 되는 러시아인 정체성 또는 카자흐스타니 정체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4) F. L. Jones and Philip Smith,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No. 2, 2001, pp. 103-118.

는 것이다. 러시아인 정체성 또는 카자흐스탄인 정체성은 소위 시민적 국민정체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소련이후 대부분 신생독립국에서는 종족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정체성과 또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정체성(state identity)이다. 국가정체성은 합의를 이룬 국민정체성으로서 주로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되어야 할 국가의 정체성이다. 국민정체성,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이 서로 명확히 구별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중첩적으로 형성되고 또한 사용되고 있다. 영어 national identity를 이러한 여러 문제를 고려해서 국가·민족정체성이라고 번역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국민이 단순히 국적(nationality)이 아니라 국가·민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정체성이라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실증자료는 기본적으로 Asia Barometer 설문조사 데이터의 통계 분석에 기초한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몽고, 네팔 등 총 14개국을 설문조사 한 Asia Barometer 2005와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7개국을 설문조사 한 Asia Barometer 2006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SPSS로 통계 분석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중앙아시아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한다.

<표 1> Asia Barometer 2005, 2006의 표본 크기

카자흐	타지크	투르크멘	키르기스	우즈베크	중앙아 합계	중국	일본	한국	한중일 합계
800	800	800	800	800	4,000	2,000	1003	1023	4,026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기존 문헌과 아울러 정체성 연구의 일반 이론에 관한 기존 문헌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후 국민형성과 국민정체성을 원초적 정체성, 전통적 정체

성, 소비에트 정체성 등 세 가지의 맥락에서 한중일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국민정체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

국민정체성 이론은 그 정체성이 실재적이며 단일하고 불변적이고 고정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자원 또는 정치적 노력에 의해 항상 변화하는가에 따라 원초주의 학파(primordialist school), 구성주의 학파(constructivist or culturalist school), 도구주의 학파(instrumentalist or functionalist school)로 대별된다.

국민정체성의 가장 초기 연구는 원초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시각은 가장 친숙하고 유기적이고 강력한 종족정체성(ethnic identity)의 요소로서 생물학적 혈통, 친척관계, 언어, 소재지, 종교 그리고 기타 불변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한다.<sup>5)</sup> 베르허(Pierre L. van den Berghe)는 소위 민족성(ethnicity)을 확장된 친척관계로 보았다. 종족적(ethnic)이고 인종적(racial)인 정서는 족벌주의(nepotism)처럼 객관적인 친척관계 요소들의 확장이라는 것이다.<sup>6)</sup> 원초주의자들은 원초적인 정체성이 인종차별과 종족·종교간 갈등처럼 가장 열정적인 인간 행태의 뿌리에 있다고 상정한다.<sup>7)</sup>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갈등은 종족집단 간 뿌리 깊은 역사적 적대성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종족적 이질성이 분열과 정체를 부추기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종족·종교·지역 정체성은 불변이고 종족 갈등의 뿌리는 과거의 증오라는 원초주의자들의 가정은 비판받아 왔다.<sup>8)</sup>

5) H. R. Issacs, *Idols of the Tribe: Group Identity and Political Change*(New York: Harper and Row, 1975).

6) 사회·생물학적 접근에서는 사회 행태는 생존, 친척 선택, 상호성처럼 생물학적 기원을 갖는다고 한다. 반면에 문화적 근본주의(cultural primordialism)에서는 원초적 정체성의 뿌리를 생물학에서 분리하고 문화에 위치시킨다.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New York: Basic Books, 1973), p. 260.

7) F. Nielson, "Sociobiology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0. No. 1, 1994, pp. 267-303.

도구주의(*instrumentalism*)는 민족성을 희소자원을 경쟁하는 집단 이익의 표현으로 개념화한다. 이들은 민족성은 문화적·정치적 선도자(*entrepreneur*)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sup>9)</sup> 대표적인 도구주의자인 바스(*Frederic Barth*)는 민족성은 종족 집단간 상호작용과 자원 경쟁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sup>10)</sup> 이 시각에서 보면 엘리트들은 집단성(*collectivity*)에 외부적인 다양한 이익 때문에 지각된 차이를 활성화시키고 명백히 하고 정치화한다.<sup>11)</sup> 예를 들어 브라쓰(*Paul Brass*)는 종족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은 서로 다른 종족 범주 내외의 경쟁 엘리트, 계급, 리더십 집단 사이의 정치적 권력, 경제적 혜택, 사회 지위에 대한 경쟁과 갈등과 항상 연관된다고 한다.<sup>12)</sup> 따라서 풀뿌리 수준에서 유사한 전략들이 개인들이 정체성 집단에 속한 혜택을 수확하게 동기부여하며, 개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전략적 효용에 따라 가용한 정체성을 선택하거나 무시한다.<sup>13)</sup>

구성주의 이론은 원초주의와 도구주의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자들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 문화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사회·문화적인 구성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그냥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들 간의 끊임없는 간주관적(間主觀的, *intersubjective*)인 과정을 통하여 내재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 
- 8) P. R. Br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Theory and Comparison*(London: Sage, 1991), pp. 290-291.
- 9) 부루베이커(*Roger Brubaker*)는 국민들(*nations*)을 지속적인 공동체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 구성된 엘리트들의 정책과 관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R. Brubaker, *Nationalism Refram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8.
- 10) F. Barth,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s of Culture Difference*(Boston: Little, Brown, 1969).
- 11) 도구주의 비판은 왜 엘리트 조작이 대중사이의 깊은 감정과 동원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함에 있어 이런 이론들의 약점을 해결한다. 이것이 소위 스미스(*Anthony Smith*)가 말하는 대중 공명(*popular resonance*)문제이다. 국민(*nation*)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희생하는 것은 정치가와 지식인들의 선전과 대중 예식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 A. D. Smith, *Nationalism and Modernism: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1998), p. 130.
- 12) Brass, op. cit, pp. 24-25.
- 13) J. Nagel, "Resource Competition Theor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8, No. 3, 1995, pp. 442-459.

원초주의를 벗어나서 아이디어, 담론, 간주관적 소통된 믿음에 보다 독립적인 역할을 주었다.<sup>14)</sup> 또한 대개의 집단성은 대면적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을 넘어서는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은 조상, 영토, 범주 심지어 소재지와 친척관계처럼 객관적 범주로 생각되는 것도 사회적 인지(cognition)와 인정(recognition)에 의해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원초적이고 불변적이라고 생각되는 종족정체성도 문화적 인공물(artifact)이고 협상과 변화에 종속적이며, 개인이 배태하고 있는 정치·문화·경제적 상황은 그들의 정체성 전략과 입장(positioning)을 결정한다.

구성주의자들은 도구주의자들도 비판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민들이 위협받을 때도 감정의 힘과 희생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은 자원동원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여긴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엘리트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해 정체성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는 없으며,<sup>16)</sup> 오히려 사회적 정체성과 그것의 변인(agents)은 서로 상호 구성적이다. 지식인들과 대중들은 그들의 문화, 가치관, 사회적 위신과 집단 명예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 지적 투쟁은 역사·문화적 레퍼토리를 통해 사회 계층으로 침투된다. 다시 말해서 종족 담론의 힘은 사회적 공명에 의해 조건화된다. 조상, 종교, 언어, 문화 등에서의 지각된 차이의 정도가 사회적 구성물(construction)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구성주의가 구조적 관념론(structural idealism)에 기반하고 있는 이론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구성주의는 유물론(materialism)보다는 관념론을 그리고 개인주의(individualism)

14) 버더리(Katherine Verdery)는 민족주의를 담론과 정치활동을 통한 상징 국민(symbol nation)의 문화적 정치적 이용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러한 상징의 이용에 반응하게 하는 정서로 정의하였다. K. Verdery, "Wither 'Nation' and 'Nationalism,'" *Daedalus*, Vol. 122, (summer 1993), pp. 37-46.

15) 앤더슨(B. Anderson)은 민족주의는 근대 시대 인류의 두가자 운명 즉 죽음과 언어 다양성에서 생겨난 사회적 상상으로 정의하였다. B. Anderson

16) 사실 이 두 학파는 점차 서로 이종교배하고 있다. P. R. Brass, *Theft and Idol: Text and Context in the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Violence*(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보다는 구조주의를 강조하는 이론<sup>17)</sup>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그리고 신념체제와 상징체계 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문화적 구성물들이 주체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근대화의 산물이지만 근대화는 국민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였다. 이 장은 근대주의 접근의 대표적 이론가인 겔너(Ernest Gellner), 스미스(Anthony Smith), 앤더슨(Benedict Anderson) 등을 중심으로 근대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타난 탈근대주의 접근을 부루베이커(Rogers Brubaker)와 알코프(Linda Martin Alcoff)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A. 국민 연구의 근대주의적 접근

국민 연구의 근대주의적 접근의 핵심은 국민은 근대화 특히 사회경제적 근대화, 정치적 근대화, 문화적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법인 사회문화적 근대화 접근은 국민은 사회경제적 근대화의 산물이고 근대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게 된 인위적 공동체라고 주장<sup>18)</sup> 하는 것으로 겔너(E. Gellner)의 저작 ‘국민과 민족주의’가 대표적이다.<sup>19)</sup> 겔너는 국민 개념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초기 산업주의, 사회적 이동성, 대중 식자의 필요, 공공 교육 등의 필요로 인해 자발적이고 학식이 낮은 문화로부터 매우 배양되고 식자있고 전문화된 높은 문화로의 근대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국민이 생겨났다고 본다.<sup>20)</sup>

두 번째 접근인 정치적 근대화 접근의 대표적 학자는 스미스(A. Smith)로서 정치적 통합체와 부합하는 국민 통합체를 강조한다. 그러나 겔너와 달리

17)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371.

18) Margaret Canovan, *Nationhood and Political Theory* (Brookfield: Edward Elgar, 1996), p. 60.

19)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6).

20) Anthony D. Smith. "Nations and Their Pasts." Opening Statement from "The Nation: Real or Imagined?: The Warwick Debates on Nationalism."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 No. 3, 1996, p. 359.

스미스는 국민과 민족이 근대적 구성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근대국가와 전 근대(premodern) 종족적 연결성(ethnic ties)을 강조한다.<sup>21)</sup> 다시 말해서 비록 국민은 근대성의 창조물이지만 구체적 국민은 또한 과거의 전근대적 종족 연계와 종족역사(ethno-histories)의 산물이라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전근대와 달리 근대에서는 종족통합성이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스미스는 서로 다른 종족 공동체들이 국민으로 전환되는 두 가지 루트를 추적하였는데, 첫 번째는 군사·재정·사법·행정적 과정을 통해 중산층과 외딴 지역들을 통합한 국가지원 전환(state-sponsored transformation)이고, 두 번째 루트는 엘리트들이 교육 등을 통해 전통적 종족 공동체를 정치적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현지 특유의 동원화이다.<sup>23)</sup>

세 번째 접근은 앤더슨(B. Anderson)의 문화적 근대화 접근이다. 앤더슨도 국민과 민족주의를 근대성의 특징으로 그리고 근대화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근대주의적 접근의 하나로 볼 수 있다.<sup>24)</sup> 하지만 상상된 공동체로서 국민에 대한 앤더슨의 설명은 스미스나 켈너와 달리 사회·정치적 결단보다는 문화적 구성물(cultural construction)을 강조한다. 즉 분석의 초점을 구조로부터 문화 그리고 결단으로부터 구성과 대표로 이동하였다.<sup>25)</sup>

앤더슨은 국민을 본질적으로 제한되고 주권인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로 본다는 점에서는 구성주의와도 통한다. 앤더슨에 따르면 국민 의식의 출현은 인쇄자본주의(print capitalism)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긍정적 의미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 가능한 것으로 만든 것은 생산 시스템과 생산관계(자본주의), 의사소통 기술(인쇄)의 발전이었다.<sup>26)</sup> 요약하면 인쇄자본주의는

21) Margaret Canovan, op. cit, p. 57.

22) Anthony D. Smith, op. cit, 1998, p. 195.

23)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Nevada,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pp. 68-69.

24) Anthony D. Smith, op. cit, 1996, p. 360.

25) Anthony D. Smith, "Gastronomy or Geology? The Role of Nationalism in the Reconstruction of Nations," Nations and Nationalism, Vol. 1, No. 1, 1995, p. 9.

26)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pp. 42-43.

특정 언어 사용자들 간의 상호 인식이 커지고 그 언어에 정착하는 것을 고무하였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소위 ‘권력의 언어’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 언어와 대중의 언어가 부합하게 되었고 이는 제국의 확대와 그들 언어의 확대 사이에 완전한 동형이성(isomorphism)을 결과하였다.<sup>27)</sup>

[그림 1] 국민정체성의 근대주의적 접근



이러한 근대주의적 접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겔너, 스미스, 앤더슨 모두 동질화를 너무 강조 반면에 민족주의가 야기하는 분열과 차이를 무시한다. 이들은 정체성의 형성이 동질화와 동시에 다양성을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민족주의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sup>28)</sup> 지배적 문화, 민족 핵심 또는 인쇄언어가 근대화된 국민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내부 범주, 즉 하위 수준과의 갈등 관계는 설명하지 못한다. 엘리트와 하위정치(subaltern politics)의 영역은 반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투쟁과 경쟁의 과정을 통해 각 영역은 상대 영역의 출현 형태를 형성

27) Ibid., p. 78.

28) Peter van der Veer, Religious Nationalism, 14-15.

한다.<sup>29)</sup> 따라서 민족주의에 의해 촉진된 결속의 연계(ties of solidarity)는 다른 형태의 소속감(belonging)과 관계에서 읽혀야만 한다. 구소련처럼 다민족 국가들에서 근대화의 이름하에 이루어진 국민형성은 하위 집단의 탄압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배적 민족주의가 역사적 국민 또는 상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유일한 방안은 아닐 것이다.<sup>30)</sup> 따라서 켈너가 높은 문화와 연결된 단일의 민족주의로 정의한 것, 스미스가 국민·정치적 정체성이 기반한 지배적 민족 핵심으로 설명한 것, 앤더슨이 단일의 상상된 공동체와 연결된 통일된 인쇄 언어로 인식한 것은 그들 자신의 문화관념, 민족관념, 언어 관념과 관계해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둘째, 켈너, 스미스, 앤더슨 모두 동질적인 높은 문화, 지배적 민족 핵심 또는 단일의 활자 언어에 중점을 둔 국민 정체성을 논의함으로써 두 번째 용어인 정체성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이들은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연관된 차별화 동인을 인지함 없이 동질화에 너무 초점을 둬으로써, 정체성에 관한 가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근대주의적 접근을 벗어나고 한다면 근대주의가 공통으로 기반하고 있는 근본적 가정들을 해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3개의 가정은 첫째 개인들은 단일하고 완전한 존재이며, 둘째, 최대한도로 통합된 정체성을 얻고자 하며, 셋째 자기모순이 없는 단일의 문화에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sup>31)</sup> 오늘날 이 세 가지 가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 B. 국민 연구의 탈근대주의적 접근

근대주의적 접근이 국민정체성 연구에서 사실성 정체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탈근대주의 접근의 핵심은 분석의 범주로서 정체성을 회복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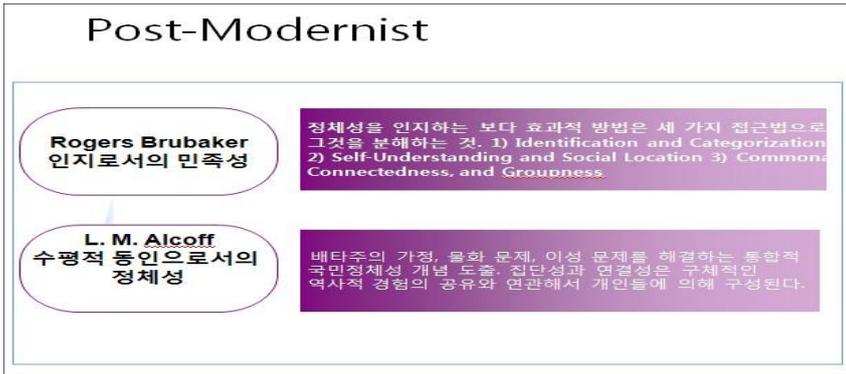
29) Partha Chatterjee,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 12.

30) Etienne Balibar, *We, the People of Europe: Reflection on Transnational Citizenship*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 17.

31) Craig Calhoun, *Nation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7), pp. 18-19.

그 방점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호한 정체성의 개념을 그 분해를 통해 모호성을 우회하고자 했던 부루베이커(Rogers Brubaker)와 통합 개념 도출에 도전한 알코프(Linda Martin Alcoff)를 중심으로 탈근대주의적 국민정체성 접근을 살펴봄으로써 근본주의와 구성주의의 진부한 논쟁을 넘어서는 실용적 국민정체성 연구 접근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림 2] 탈근대주의적 국민정체성 접근



부루베이커는 정체성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분석의 범주로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이지만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정체성은 구체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돕기보다는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sup>32)</sup> 정체성이 분석의 범주로서 개념적으로 부정확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정체성의 개념을 1) 개인 또는 집합적인 자기이해로서의 정체성 2) 집합적 동일성(collective sameness)으로서의 정체성 3) 사회적 존재(social being)의 근본적 또는 기초적 조건으로서의 정체성 4) 자아의 과정적(processual)이고 상호작용적 이해로서의 정체성, 5) 다중적이고 경쟁적인 담론의 사라져가는 산물(evanescent product)로서의 정체성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sup>33)</sup> 그는

32) Rogers Brubaker, *Ethnicity without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p. 29.

33) *Ibid.*, pp. 33-35.

이렇듯 개념적으로 모호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세 가지 접근법으로 분해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는 일체화(identification)와 범주화(categorizations), 두 번째는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와 사회적 위치화(social location), 셋째는 공동성(commonality), 연결성(connectedness), 집단성(groupness)이다.<sup>34)</sup>

일체화와 범주화는 정체성을 개념화하는 첫 번째 대안적 방법이다. 부루베이커에 따르면 정체성보다는 일체화(identification)에 초점을 두는 의해 정체성의 구체화 해야 할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체화는 인지하는 구체적 주체에 주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체화와 범주화에 대한 초점은 이런 인지가 반드시 내부적 동질성을 결과한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sup>35)</sup>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이해와 사회적 위치화이다. 자기이해라는 용어는 소위 상황적 주관성(situated subjectivity)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정체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한 사람의 지각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어떻게 행동을 준비하는가의 지각이다.<sup>36)</sup> 따라서 자기이해와 사회적 위치화는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이 보편적이고 구조적으로 결정된 이익보다는 자아와 사회 위치의 특정적 이해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방식을 조명한다. 세 번째 접근은 공동성, 연결성, 집단성이다. 부루베이커에게 공동성은 어떤 공동의 속성을 공유하는 것이고 연결성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관계적 연계(relational ties)를 의미한다.<sup>37)</sup>

부루베이커가 분석의 범주로 정체성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면 알코프는 분석의 범주로서 정체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정체성의 일부 구성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체성의 개념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를 검토하였다.<sup>38)</sup>

34) Ibid., pp. 41-47.

35) Ibid., p. 41.

36) Ibid., p. 44.

37) Ibid., p. 47.

38) Linda Martin Alcoff, *Visible Identities: Race, Gender, and the Sel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4.

알코프는 정체성 개념에 반대하는 여러 논리를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여 그 반대 논리를 개진하였다. 첫째는 분리주의 문제이다. 정체성은 더 큰 집단분류 내에 갈등적인 충성의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민족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고 연합구축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분리주의 문제를 결과한다는 것이다.<sup>39)</sup> 두 번째 비판은 물화문제(reification problem)이다. 많은 학자에 따르면 정체성 정치는 집단 정체성의 물화를 자극하여 순응주의, 비관용, 가부장주의의 문제를 결과한다는 것이다.<sup>40)</sup> 세 번째 정치적 논쟁은 이성문제(reasoning problem)이다. 문화적 전통에 배태된 주장들이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되어 많은 경우 국민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괴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sup>41)</sup> 사회적 정체성은 구성주의의 한 개념으로서 행위자가 타행위자를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규정하는 일련의 의미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알코프는 상기한 세 가지 문제는 세 가지 상응하는 가정과 연관된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첫 번째 분리주의 문제는 배타주의 가정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배타주의 가정은 정체성은 한 정체성을 다른 정체성과 구별시킴으로써 의사소통과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이익집합으로 지각한다. 두 번째 물화 문제는 자아의 하나의 속성으로서 외부로부터 부과된 모든 것은 개인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된다는 가정에서 나온다고 하였다.<sup>44)</sup> 즉 물화 문제는 개인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는 가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성문제는 정체성은 가치, 이익, 믿음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숙고를 위해 사람들은 사건을 합리적으로 편견 없이 무게를 재고 타당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갈등적 가치들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초월해야만 한다는 가정에 기

39) Linda Martin Alcoff, *Visible Identities: Race, Gender, and the Sel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6-37.

40) Linda Martin Alcoff, *Visible Identities: Race, Gender, and the Self*, 37.

41) Ibid.

42)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June 1994, pp. 384-396.

43) Linda Martin Alcoff, *op. cit.*

44) Ibid., pp. 37-38.

초한다. 즉 그것은 정체성의 힘은 한 개인의 합리적 사고의 능력에 반비례라는 가정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객관화 가정(objectivizing assumption)이라 하였다.

알코프는 첫 번째 배타주의 가정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여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두 번째 개인 자유를 강조하는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는 서구 사상에서 자아를 지각하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인 계몽과 타자 의존성을 들어 반박하였다. 계몽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성을 가짐으로서 외부에서 부과된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고 생각하기 위해 개인들이 부과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데 이성의 능력이 필요해진다. 다른 한편으로 헤겔 이래 자아의 모든 심리학적 설명은 자아 형성의 중심에 타자의 의존성을 놓는다.<sup>45)</sup> 따라서 타자로부터의 분리와 타자에 대한 의존이 동시에 필요하다. 타자로부터의 분리는 자유는 이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것은 타자로부터 분리되는 능력에 달려있고 반면에 헤겔 전통에서 자아는 불가피하게 타자에 의존적이고 따라서 타자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 비자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객관화 가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이성은 정체성의 초월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알코프는 이러한 초월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성은 배경 가정에 대한 판단 요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평적 동인(horizon of agency)으로서의 정체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에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객관적 사회적 위치와 집단역사를 통해 살고 해석하고 일하는 방식이다.<sup>46)</sup> 그녀는 정체성을 공공 정체성(public identity)과 생활 주관성(lived subjectivity)으로 구분한다. 공공 정체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네트워크, 지각과 분류의 시스템 내의 사회적으로 지각된 자아이며,<sup>47)</sup> 생활 주관성은 우리가 스스로 누구라고 이해하는가, 우리가 어

45) Ibid., p. 44.

46) Ibid., p. 42.

47) Ibid., p. 93.

떻게 스스로를 그리고 경험하는가를 가리킨다.<sup>48)</sup> 알코프는 공공 정체성도 생활 주관성도 분리될 수 없는 실체이고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수평은 해석자가 세상을 보는 실제적 시각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평의 개념은 이해를 위한 구성적인 특징으로서 경험과 정체성을 연결하는 지식의 설명을 연결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서 정체성의 적절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요인으로서의 정체성 개념은 경험과 정체성의 유동적 특성의 중재된 성격을 설명해준다. 수평의 통합은 알코프로 하여금 맥락과 경험을 설명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결정론적 사고를 피하게 한다. 수평적 동인으로서 정체성의 설명은 분석의 초점을 집단 형성의 과정으로 전환시킨다.

부루베이커와 알코프 모두 정체성의 고정되고 엄격한 성격을 조망하는 원초주의와 유동성과 상황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를 모두 넘어서서, 정체성의 개념화를 인정하면서도 우회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초주의와 구성주의의 설명이 반드시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원초주의는 현실의 또는 귀속된 인간 차이를 중립화하고 본질화 함으로써 외관상 보편적 경향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반면에 구성주의는 민족성이 어떻게 특정 맥락에서 적절하거나 현저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sup>49)</sup> 이런 맥락에서 부루베이커는 양 입장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 집단들이 어떻게 지각되는가, 민족사회학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는가의 문제와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민족성이 국제적 관행해서 작용하는가는 접근법의 상대적 강조점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알코프도 정체성 자체가 문제라는 선형적 문제에 초점을 둬으로써 양자 토론에 간접적으로 대응한다. 그녀는 사회적 정체성 자체는 선형적 문제이므로 정체성은 현실적으로 믿어지거나 정치적으로 작용할 때 위험을 주고 잘못된 가정에 집착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선형적 문제로서 정체성의 문제의

48) Ibid.

49) Rogers Brubaker, Mara Loveman, & Peter Stamatov. "Ethnicity as Cognition," *Theory and Society*, Vol. 33, 2004, pp. 31-64.

형성과 정체성의 다른 종류의 문제의 형성 사이를 구별한다.

이런 맥락에서 부루베이커의 인지로서 민족성의 형성과 알코프의 수평적 동인으로서의 정체성 개념화는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다. 인지적 접근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종이 무엇인가? 민족집단이 무엇인가? 국민이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에 민족 또는 국민 용어로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왜 사회 경험을 해석하는가를 묻는가를 권장한다. 이러한 인지적 접근의 이점은 첫째, 집단주의(groupism)를 피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상상의 내용을 집요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민족성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민족적 시각의 개념을 명료히 하는 것을 돕는다. 부루베이커에게는 민족성은 시각, 해석, 대표, 분류, 범주화, 인지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는 민족성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시각이라 주장한다. 즉 존재론적 현실이 아니라 인식론적 현실인 것이다.

한편 현실적인 정체성 설명의 맥락에서 알코프는 정체성은 인식론적 차이를 만들고 정체성은 개별 주체와 연관되는 복잡한 사고의 산물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에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객관적 사회적 위치와 집단역사를 통해 살고 해석하고 일하는 방식이다. 알코프의 수평적 동인에서 수평은 물질적이고 구체화된 상황성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양 저자의 극명한 차이점이다. 부루베이커에게는 민족성은 인식적 현저성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대표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민족성은 물질적이거나 구체화된 상황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족성은 존재론적 현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세상에 대한 시각이고 세상의 것이 아니다. 반면에 알코프는 구체적인 정체성이 기능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물질성(materiality), 물리성(physicality), 구체성(embodiment)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인종과 성은 가장 분명히 물리적이다. 국민의 범주와 정체성 사이의 상호교차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존재론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분석의 범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루베이커나 알코프가 제시하는 것처럼 과정론적 정체성

인식의 틀을 만드는 것이며 그 틀을 이용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증해 나가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제약 상 과정적 틀을 정교화하지는 않고  
대략 여러 가지 입장을 통합하여 원초적 요소, 제도적 요소(특히 집단기억으  
로 물려받은 소비에트 요소), 그리고 전통적 요소 등 3 요소로 분해하여 중앙  
아시아 국민들의 자기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정체성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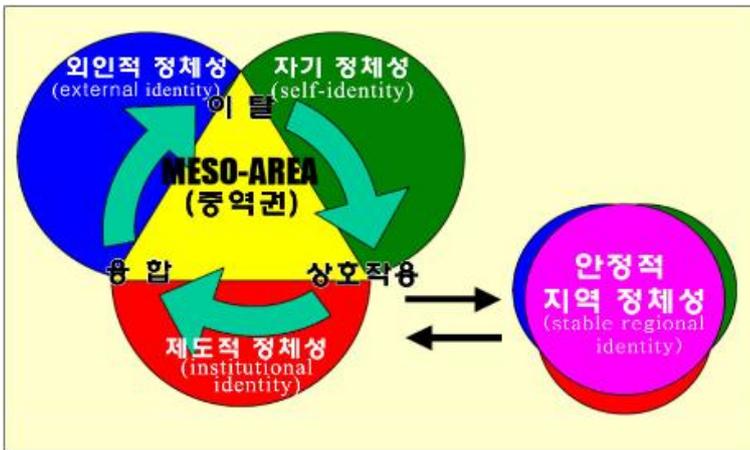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  
향력 회복, NATO와 EU의 동진, 이슬람 세력의 복귀라는 세 가지 힘이 휘몰  
아치면서 전형적인 ‘중역권(meso-area)’ 또는 가장자리 지역(rim land) 성격  
을 보이는 지역이다. 원래 중역권은 ‘광역권(mega-area)’에 속해는 있으나  
광역권을 퇴거할 가능성이 커지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써, 사회주의 체제라  
는 공통성을 유지해 온 ‘슬라브 유라시아’ 내에서 사회주의 체제 붕괴 후  
점차 독자성을 강화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중앙유라시아’, ‘동유럽’  
등의 공간적인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sup>50)</sup> 이에다(O. Ieda)는 광  
역권-중역권 분석(Meso-Mega Area Dynamics) 이론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과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기하고 있는 중심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각각의 ‘중역권’은 세 가지 정체성, 즉  
‘외적 정체성’(external identity),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제도적 정체  
성’(institutional identity)을 갖는데, 어떤 ‘중역권’의 ‘외적 정체성’, ‘자기 정  
체성’, ‘제도적 정체성’ 간의 3중의 상호작용은 두 가지 ‘광역권’(‘exit  
mega-area’와 ‘entry mega-area’) 사이에서 중역권이 거치게 될 변동의 종류  
(반발, 이행, 전환, 진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어떤 중역권이 ‘제도적 정체성’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반

50) Osamu Ieda “Regional Identities and Meso-Mega Area Dynamics in Slavic Eurasia:  
Focused on Eastern Europe,”(Jan. 2004), pp. 1-19.

동'(backlash)의 방식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어떤 중역권이 '외적 정체성'에 압도되면 될수록, 새로운 광역권으로 '이행적인'(transitional) 진입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어떤 중역권이 새로운 광역권을 향해 이동하는 동안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퇴거 광역권'과 '진입 광역권' 양자의 '변환적' (transformational) 동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넷째, 어떤 중역권의 세 가지 '정체성의 혼합'이라는 모호한 상태에 머물수록, 광역권 간의 '진화적인'(evolutional)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아시아는 제도적 정체성의 부담이 여전하나 적극적 국민형성을 통한 자기 정체성과 서구와 러시아 힘겨루기에 의 한 어느 정도 균형적인 외적 정체성이 서로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매우 더딘 진화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국가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같은 신생개도국들에서 가장 현안인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형성은 근대화 과정 그 자체로 여겨졌다. 종족·부족 정체성은 전근대성에 속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근대화된 국민국가에서 하위국가 정체성 또는 지방정체성은 용인될 수 없었고 통신과 운송의 발전은 근대 국민

국가의 고립 지역에 대한 침투와 동원의 열쇠로 생각되었다.<sup>51)</sup> 근대화는 종족 정체성과 부족 정체성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돌리려 했지만 실상은 그것들을 정치화시켰다. 근대화는 근대적 국가권력을 지방 공동체로 깊이 침투시켰지만 중앙국가의 정체성 문제의 개입은 이전의 지방 갈등을 국가수준으로 상승시켰다. 소련 시절 중앙 권력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특정 부족이나 종족 집단에게 지방 행정 권력을 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 이후 탈식민 권력 엘리트들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확대하려 했을 때 지방의 저항에 부딪혔다.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지방 정체성 정치였던 것이 독립이후에는 국가적인 정체성 정치가 된 것이다.

독립 이후 정체성 형성에 대한 입장은 크게 민족주의자(nationalist)와 세계주의자(cosmopolitan)로 나뉘고 양자의 정치적 입장은 상호 구성적이다. 세계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국가 권력 강화를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세계주의자들은 카자흐 민족주의는 석유라는 국가자원을 자신들 것으로 강탈하는 것을 위장하는 가면이라고 주장한다.<sup>52)</sup> 종족 민족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전통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종족 민족주의는 국가 내 종족 간 불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통적·정치적 가치관과 자원배분의 원칙에 의존함으로써 암암리에 씨족(clan) 족벌주의를 활성화한다. 도시의 지식인 계층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정부는 농촌 거주 명목민족(titular nation)의 지지를 자극하기 위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부활시키려 노력한다.

소비에트 시절의 근대화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는 부정적 기억으로 남아있다. 세계주의자들은 정체성의 역사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현지 역사와 문화와의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전통 거리의 이름을 망각하게 되었다.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식적인 국적 정책은

51) K. W. Deutch and W. J. Foltz, Nation-Building(New York: Atherton Press, 1966).

52) Ahmet T. Kuru, "Between the State and Cultural Zones: Nation Building 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1, No. 1, 2002, pp. 71 - 90.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타협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카자흐의 민족 주권(national sovereignty)을 대표함과 동시에 시민공동체로서 카자흐스탄 국민(Kazakhstani nation)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sup>53)</sup> 민족주의자들은 세계주의자들이 거부했던 카자흐의 상징물, 역사적 신화, 영광, 영웅들, 문화적 인위물 등 영토적 민족주의의 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자연권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와 반면에 세계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부정적인 소비에트의 기억에 의해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다시 말해 ‘소비에트의 저주’<sup>54)</sup>를 안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원초주의적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종족집단으로서 카자흐의 지위는 생존 대 소멸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투쟁을 단순히 도구적 이해관계 또는 자원민족주의로 축소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에 대한 지속적 동화의 기억으로 해서 민족주의자들은 국제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에게 자국 내 러시아인들을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 세계주의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 시민적 국민정체성이 빠른 시간 안에 형성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 A.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정체성의 공통적 특성

중앙아시아의 종족정체성은 원시주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중앙아시아의 ‘종족들(ethnos)’이 집단을 이루어 이미 적어도 1000년을 넘게 존재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지닌 학자들은 지난 천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종족들 간에 영토와 영향력, 통제권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싸움을 언급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20세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즉

53) Н. Романова,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1998), с. 12-13.

54) 이 용어는 저자가 소비에트 정부가 근대화의 인물 상징으로 제시한 호모 소비에트쿠스가 실상은 차별적이었던 집단 기억에 의해 중앙아시아 사람들 특히 민족주의자들이 세계주의자형 인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



간의 언어적 연계가 그들을 통합시키고 아니톨리아 반도의 투르크들과의 친밀감을 만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중앙아시아의 언어와 아니톨리아 터키어는 상당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타지크인과 이란인도 연계가 미약하다.

종교의 경우도 이슬람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중요한 정체성 기반이었지만 종교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방식, 종교 단체의 의미, 종교 기반 정체성의 이해는 복잡한 정체성의 단지 일부였다.<sup>56)</sup> 소비에트 시절 이슬람을 탄압하고 무슬림정체성을 국민정체성을 대체하려고 소련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반발을 가져와 중앙아시아인들이 러시아인들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종교정체성이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둘째,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지역·종교정체성외에 또 다른 초국가적 정체성은 소비에트 정체성이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처음으로 명확히 구분시킨 것은 그들의 여권에 기재된 소련이 만든 신분과 그들이 살고 있는 소비에트가 만든 공화국이었다. 소비에트 정체성이 원초적 정체성 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아시아의 근대화가 소련에 의해 이루어졌고 중앙아시아인들은 많은 소비에트 문화와 사고를 흡수했다. 특히 1991년말 소련 해체가 논의되던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해체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sup>57)</sup> 그런 배경에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발전에 뒤쳐졌다는 소비에트 문명 담론을 인정하고 소비에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도 근대화 발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독립 후에는 탈 소비에트화 또는 탈러시아가 주요한 정체성 형성의 방향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역사적 원류를 찾는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책이나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서사시 강조는 전형적인 역사성 강조의 예이다.

56) Jo-Ann Gross, *Muslims in Central Asia: Expressions of Identity and Chang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2), p. 16.

57) Ronald Grigor Suny,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3. (Winter, 1999-2000), pp. 139-178.

셋째, 독립 초기에 ‘국민(nation)’ 혹은 ‘민족적(national)’이라는 단어는 종족(ethnic)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종족의 형성’ 혹은 ‘종족화’ (ethnicisation)라는 주장이 공식적인 국가 독트린으로 전환되기도 했으나 점차 시민적 국민형성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 국가 경계선은 1924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연방에 편입하게 되면서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족, 국가 경계선 확정의 과정에서 중앙아시아국민들은 사실상 특정 문화와 언어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 혹은 정치 그룹에 충성을 맹세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계층들과 그룹들은 인위적이고 행정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민족 혹은 민족그룹들로 끼워 맞춰져야 했다. 모든 지역의 거주자들은 몇 개 민족의 범주들 중 하나에 소속이 되어야 했다.<sup>58)</sup> ‘민족 그룹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계질서의 원칙이 도입이 되었는데, 다시 말해 일부 민족은 주요 민족으로 취급이 되었고, 그 외의 그룹들은 주요 민족에 복속되어야 하는 종속적 민족으로 결정이 되었다. 소련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종족’ 정체성을 구분하게 되면서 나타난 부차적인 결과물은 주요 민족그룹에 소속되지 못한 민족 그룹에게 나타나는 자의식의 고양이다. 독립 후 국민형성의 초기단계에서 명칭민족들의 국민형성 주도가 불가피하였으나<sup>59)</sup> 점차 국적 중심의 국민통합 정책이 이루어졌다.

넷째, 중앙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은 과거부터 중앙아시아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씨족 관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공화국내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확대해 가게 되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내부에 중앙집권적인 정치기구와 정치적 연합을 통한 의회정치 형태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씨족 정체성이 여전히 중앙아시아에서 사회의 규제와 변동에 영향을

58) Ibid.

59) 예를 들어 1993년의 헌법에서 여태까지의 국명이었던 ‘키르기스스탄공화국(the Republic of Kyrgyzstan)’을 ‘키르기스공화국(the Kyrgyz Republic)’으로 개칭한 것은 국가의 종족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나갔다.<sup>60)</sup>

다섯째, 정부주도의 국민형성은 비민주적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민족적 소속과 정치적 소속을 나타내는 ‘국적(nationality)’과 ‘시민(citizen)’의 개념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인이라고 했을 때, 비카자흐스탄 민족출신자들이 민족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소속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협소한 민족주의의 개념 확산으로 타민족출신의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시키는 비민주주의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 성립된 중앙아시아 국가들내에서의 국민정체성 형성의 노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족의 결합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개개인의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타민족출신들에 대해 새로운 적대심을 갖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B. 우즈베키스탄 국민정체성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이 국민형성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1860년 대 후반 제정러시아가 이 지역을 복속한 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에미르 관할(emirate)이나 부족연합체 형태가 신생 국가의 영토적·종족적 단위 혹은 경계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우즈베크인들은 오늘날의 영토 경계 내에서 우즈베크 종족-민족 정체성이나 우즈베크 국가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정치적 정체성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독립 후 역사 속 민족 뿌리 찾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14~16세기에 사마르칸드를 수도로 하여 제국을 이루고 중앙아시아 일원을 지배했던 티무르와 바부르(Babur)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우즈베크화 하기를 선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6세기 자산들이 몰아내었던

60) 엄구호,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3호, 2009, pp. 181-220.

티무르와 바부르로 이어진 차가타이부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것은 혈연이나 종족의 근원보다는 동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공간 귀속성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1)</sup> 그리고 우즈베크인들은 오래전에 유목에서 정착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종족과 부족 출신인지에 관한 지식과 의미와 중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의 씨족에 비교해서 혈통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우즈베크스탄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가장 큰 국민정체성의 요소는 소비에트 정체성이다. 여기서 소비에트 정체성은 정치체제나 이념적·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소련과의 동일시를 의미하기보다는 보편적 러시아·소비에트 문화를 공유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독립 후에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종족·민족이라는 원초적 정체성 찾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우즈베크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주민들은 소비에트 문화와 사고를 폭넓게 흡수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소비에트 말기에 소련 전역에서 대중적으로 분출되었던 민족주의 혹은 분리주의 운동에 그들이 비참여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sup>62)</sup>

한편 우즈베크스탄의 종교 정체성은 생각보다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이슬람 정체성의 정치적 표출로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 혹은 ‘이슬람주의(Islamism)’는 우즈베크스탄에서 대중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며 폭넓게 확산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슬람주의적 정체성이 간헐적이거나 강력하게 표출되곤 하는 것은 나망간(Namangan), 안디잔(Andijan), 마르길란(Margilan) 등 페르가나 계곡에 근거를 둔, ‘페르가나 원리주의(Ferghana fundamentalism)’로 불리는 급진 이슬람주의 분파에 국한된 현상일 뿐이다. 페르가나의 원리주의자들은 와하비즘(Wahhabism)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수피즘(Sufism)을 신봉하는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민중 속으로 폭넓게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이슬람부흥당(Islam Renaissance Party)’이나 ‘우

61) 강봉구, “우즈베크스탄의 국가정체성 형성-민족국가의 발명”,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2010), pp. 399-422.

62) Suny(1999/2000), op. cit., p. 167.

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slam Movement of Uzbekistan)'은 사멸하거나 현저히 약화되었고, '이슬람해방당(Hizb ut-Tharir)'과 안디잔 사태에서 건재함을 보여 준 '아크라미야(Akramiya, Akramist)'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sup>63)</sup>

국가형성 과정에서 우즈벡 정체성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이 '마할라(mahalla)' 제도이다. 마할라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주민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인데 타지크인들은 이를 '구자르(guzar)'라고 부른다.<sup>64)</sup>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만개 이상의 마할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넓이, 귀속 주민, 활동이란 측면에서 폭 넓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 크기는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마할라는 약 2천 명 정도의 주민들을 포괄하고 있다.<sup>65)</sup> 마할라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에트 정체성도 아니고 이슬람주의적 정체성도 아닌 고유한 우즈벡 종족·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마할라 제도를 보편화함으로써 사회와 일상에 대한 국가의 침투 능력 및 통제력을 배가하였다. 국가는 마할라의 권한과 역량을 키워 주면서 동시에 정치적 필요를 위해 마할라의 능력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전 사회의 마할라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 과정은 공동체와 국가의 우즈베크화, 원주민화 혹은 토착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C. 카자흐스탄의 국민정체성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로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다수 민족인 카자흐인은 15세기 중엽 투르크-몽골 유목민의

63) Игорь Кирсанов, "Исламский вызов для Узбекистана." (2008) <http://www.eurasianhome.org> (검색일: 2008.06.13).

64) 강봉구, 전제논문 참조.

65) Eric W. Sievers, "Uzbekistan's Mahalla: From Soviet to Absolutist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t Chicago-Kent*, Vol. 2, 2002, p. 95.

통합을 기초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5세기 중반 우즈베크 칸국이 아불 하이르(Abul Khayr) 통치기에 있던 시기에 아크오르다 바락(Barak) 칸의 후손으로 아불 하이르의 통치를 받고 있던 자니베크(Jannibek)과 키레이(Kirei)가 독립을 선언하였는데 이것이 카자흐 정체성 형성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우즈베크와의 영토 경쟁을 통해 영토가 점차 확대되어 16세기 전반 카숨 칸 사망후 카자흐 통치영역은 조직적인 통치 필요에 따라 세 개 쥬즈(Zhuz)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sup>66)</sup> 세 개의 쥬즈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카자흐는 공통의 언어, 문화, 경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 민족 공동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23년 카숨 칸이 사망한 이후 후계자들이 통치력이 약화된 반면 영토는 확장되면서 광대한 카자흐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개별적인 정치적인 공동체로 세 쥬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단일 카자흐 민족 정체성이 약화되고, 민족내 공동체인 쥬즈 단위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18세기에는 중가르(Jungar)의 중앙아시아 정벌이 시작되었는데 중가르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다.

제정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후 카자흐 초원은 다문화적·다민족적·다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다양한 공동체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까지 카자흐스탄 국민정체성의 가장 중심적인 전제조건이 되었다. 구성원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동질적이었던 카자흐인 중심 공동체에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같은 슬라브계 이주민 집단이 유입되어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타타르, 위구르, 독일, 폴란드, 몰도바 민족 디아스포라가 당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 집단의 일원이 되어, 이른바 투르크계와 슬라브계, 그리고 유럽 계통 민족들로 구성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sup>67)</sup>

66) 쥬즈라 함은 카자흐 칸국이 해체된 16세기 중반에 나타난 스텝 유목민들의 부족-군사 동맹체로서 형성되었던 지역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A. T. Төлеубаев, Ж. К. Касымбаев, М. К. Кой гелдиниев, Е. Т. Калиева, Т. Т. Далаева,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Изд-во «Мектеп», 2006 г. 240 с.

67) 김상철, “카자흐스탄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특징”,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2010), pp. 350-398.

카자흐민족은 다민족국가체제가 시작되면서 카자흐 종족정체성은 약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소비에트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소비에트 초기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토착엘리트 중심의 통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영향을 미쳐 카자흐스탄에서는 씨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이웃 국가들보다 더 강하고 계속 유지되고 정치적 삶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사츠(Edward Schatz)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근대화 보다 소비에트화가 이러한 하위민족성 견고화에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sup>68)</sup> 소비에트 정권이 근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부족 경제는 하위민족 네트워크의 번성을 가져왔고, 소비에트 민족정책을 통해 이를 없애려 노력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지하 경제로 숨게만 하였고 네트워크의 효용성은 증대되지만 하였다.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민족 범주의 확대와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소련시기 중앙아시아의 통치제도에 있어서의 모순은 이른바 혈연 공동체 단위의 정체성을 약화 및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근대화가 오히려 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소련 말기에 카자흐스탄은 거의 도시화, 산업화되어 사회주의적인 발전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문맹이 거의 퇴치되었고, 교육이 확대되었으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다민족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다민족국가 정체성이 소비에트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소련의 붕괴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역전되었다.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민족 구성 부족 가운데 특히 토착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제도의 부활은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보편적인 흐름으로 나타났고, 카자흐스탄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소비에트 시기에 시도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 집단에 대한 문화적인 자치의 허용과 정치적인 자치의 불허라는 이른바 문화적인 민족주의의 허용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통치제도 확립에 대한 기대는 바로

68) Edward Schatz, *Tribes and Clans in Modern Power: The State-led Production of Subethnic Politics in Kazakhstan*,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0) 참조.

붕괴되었다.

카자흐 종족정체성이 약했던 카자흐스탄에서 독립 이후 카자흐 정체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다민족 사회를 관리 하기 위해 씨족체제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더 상위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를 통해 종족 간 갈등을 관리하고 각 종족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이후 공산주의의 빈자리에는 민족주의가 채워졌다. 카자흐스탄 이 다종족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 정체성을 카자흐스탄 국민정체성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들이 독립 직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자르 바예프 정부는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카자흐 민족을 위한 카자흐스탄 과 여타 종족을 위한 시민공동체 카자흐스탄이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 였다. 그러나 여타 종족에서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특히 러시아인들의 러시아 로의 귀환 현상이 두드러졌다.

현대 카자흐스탄은 이른바 유럽과 아시아적인 요소를 모두 지닌 다민족사 회가 개별 집단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은 가장 전형적인 유라시아 국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카자흐스탄이 겪어온 역사적인 변천의 과정에서 계속 축적되어온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카자 흐스탄의 국민정체성을 단일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sup>69)</sup>

#### D. 키르기스스탄 국민정체성

키르기스의 종족적 기원 문제는 중앙아시아 종족 역사 중 가장 논쟁적인 것 중의 하나이지만, 오늘날 키르기스인들은 ‘동투르크인(Eastern Turks)’과 몽골족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sup>70)</sup> 키르기스인들은

69) 김상철, 전개논문 참조.

70) Robert Lowe, "Nation Building and Identity in the Kyrgyz Republic." Tom Everett-Heath (ed.).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Routledge, 2003), p. 107.

6세기에 예니세이 계곡에서 자신들의 국가인 키르기스 카가나트(Qaghanat)를 복원하였다고 전해진다. 840년에 키르기스 주민들은 오르혼의 위구르 카가나트를 멸망시키고 내륙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다. 당시 키르기스 국가 영토는 남시베리아, 알타이, 몽골 및 동투르크스탄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0세기의 4반세기 말경에 키르기스 유목 제국은 몇 개로 분열되었고 그 이후는 어느 정도 지속된 국가성을 유지한 적이 없다. 키르기스스탄은 소비에트 시기인 1936년 12월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오늘날의 영토에서 최초로 국가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국민국가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소련의 해체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건설을 시작하고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71)</sup>

소비에트 시절 중앙 정부의 국민정체성 형성과 유목 부족의 정착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소비에트 시절에도 분열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치적 측면으로 확산되었다. 정치 엘리트도 남부 지역 출신과 북부 지역 출신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이 시절은 소련이라는 큰 우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경쟁과 갈등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어를 말하는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현지인들의 국민정체성 형성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권력 하에서 명칭민족(titular nation)의 비중은 42%로 떨어졌다.<sup>72)</sup>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북부 지역과 대규모 도시로의 계속된 이주는 남북간 지역주의를 더 심화시켰고 도시와 시골 간에도 큰 구분선을 만들게 되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일 민족 집단이 형성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현재 정치적 분열의 뿌리가 되었다.<sup>73)</sup>

71)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국가정체성 형성의 특징과 대외정책 정향의 변화”,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2010), pp. 443-496.

72) Nikolai Borisov, “Revolutionary and Post-Revolutionary Processes across the Post-Soviet Expanse: Can They Be Compared? (Ukraine and Kyrgyzstan),” *Central Asia and Caucasus*, No. 5(41), 2006.

73) Ibid., 참조.

키르기스스탄의 국민정체성 형성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 남부 도시 오쉬(Osh)에서 우즈베크인들과의 종족 갈등을 경험했고 사회지도층이었던 러시아인들이 대규모로 떠났고 국경분쟁과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독립 후 과거 민족국가를 이루었던 정치적 전통이나 강력한 종교 정체성이 없는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키르기스 민족정체성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을 많이 발굴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설적 영웅인 마나스(Manas) 이야기이다.<sup>74)</sup> 아카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은 우리 공동의 집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종족 간 통합에 노력하였지만, 키르기스 민족주의와 지역 및 씨족 기반의 갈등은 커지는 반면 경제위기는 심화됨에 따라 악화되었다. 언어정책도 이민을 부추겼는데 키르기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종족 집단의 정치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키르기스 국민정체성의 중요한 한 부분인 이슬람 또한 통합적 이데올로기로서는 불확실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 이슬람이 전파된 것은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이지만 키르기스인들은 여전히 샤머니즘을 보존하였다. 또한 소련시절 이슬람 억압정책은 이슬람의 역할을 더욱 약화시켰다. 탈소비에트 키르기스 지도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및 씨족 세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세력 강화에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통합을 저해한 것이다.<sup>75)</sup>

독립 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다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약화되었던 키르기스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또한 정체성의 강조를 통한 정권지지 강화를 위해 민족의식 고양을 강조하게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국의 국어인 키르기스어와 ‘마나스 서사시’ 강조였다.

74) 마나스 이야기는 약 5백만 행에 달하는 장대한 분량인데, 그 길이는 호머(Homer)의 ‘오딧세이(Odyssey)’와 ‘일리아드(The Iliad)’를 합한 것의 약 20배에 해당한다. 서사시의 내용들은 키르기스인들이 서사시에서 묘사된 전투들을 치루면서 오늘날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해 온 대략 9세기경부터 12세기 사이에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Manas, Vol.I-Vol.IV., Archive of Turkish Oral Narrative, Uysal-Walker, Texas Tech University. (<http://aton.ttu.edu/turkishlist.asp> 검색일: 2011.04.08).

75) Saltanat Berdikееva, “National Identity in Kyrgyzstan: the Case of Clan Politics,” prepared for and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Nationalities’ 11th Annual World Convention entitled “Nationalism in an Age of Globaliz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March 23 - 25, 2006.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국민정체성 형성이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단일 국민의 실제적 부재, 하위민족 지역집단 간의 사회·경제·문화·가치론적 갈등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정치적 다중심주의, 즉 한 중심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씨족의 범주를 넘어 국민 수준으로 정체성 합의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이 색채혁명을 겪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씨족중심 정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나스 서사시’ 강조나 키르기스어 강제가 국민으로서의 키르기스스탄인인 키르기스스타니(Kyrgyzstani)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키르기스 국민들을 소외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키르기스스탄의 지역주의는 뿌리가 깊다. 소비에트 시절 근대화 작업이 주로 북부에 정착한 이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었던 점과 소비에트의 키르기스 문화에 대한 비관용 정책은 지역주의 심화에 영향을 주었다.<sup>76)</sup> 이런 상황에서 배타적 종족화 정책이 독립 초기에 나타난 점은 당연한 측면이 있으나 키르기스스타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적 국가 이념이 국민정체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E. 타지크스탄 국민정체성

일반적으로 현대 타지크스탄 국가 건설에 대하여 언급할 때 타지크인들의 국가성의 기원은 고대에서 찾아야하며, 박트리아와 소구드, 호레즘 시대의 국가·정치적 전통에서 연유한다고 한다.<sup>77)</sup> BC 6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후, BC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정복되었고, 그 제국이 분열한 후에는 구레코 박트리아에 속했다. 그러나 7세기에 투르크 민족에 의해 점령당함으로 타지크 문화는 점차로 투르크화 되었다. 8세기에는 중동 아랍인에 의해 타지크 족이 정복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타지크 인들은 이슬람으로 개

76) Daniel E. Harmon, *Kyrgyzstan*. Philadelphia: Mason Crest, 2005. pp. 40-45.

77) Абдусаттор Джаббор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Таджикистан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No 1(31) (2004), p. 56.

종하였다. 9세기 후반에 부하라를 수도로 하는 사만 왕조에 속하였다가 10세기 말 투르크족에 의해 멸망당했다. 13세기에는 다른 중앙아시아와 같이 몽골의 칭기즈칸에 점령되었고, 14세기에는 티무르 제국이 타지크 족을 지배했다. 결국 타지크 족은 이 시기에 성립된 ‘우즈베크 칸’에 19세기 후반까지 지배를 당하면서 독립 국가를 이루어본 적이 없었다. 16세기 이후 투르크족의 강력한 등장으로 타지크는 페르시아 문화권으로부터 소외당하였다. 타지크 족이 ‘쉬아’와 보다 ‘순니’파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배경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있지만, 수세기동안 우즈베크 민족과 동화되어 거주함으로써 투르크 문화권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

19세기 중엽을 지나 제정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1866년에 부하라 칸국을 최초로 멸망시킨다. 이 직후 제정러시아는 지금의 타지크 지방으로 침입을 시도했지만, 격심한 저항을 받고 1895년에서야 타지크 족은 정식으로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결국 타지크는 1917년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될 때 투르크스탄공화국의 일부가 되어 러시아공화국연방에 속하게 되고 1924년 부하라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이 부하라 사회주의공화국으로 재편성될 때에 소연방에 가입하였고, 그 후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 타지크자치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29년 단독으로 소연방 구성공화국이 되었다. 1991년 9월에 독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에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하였다. 상기에 언급한 역사를 통한 문화 전승 측면에서 타지크인들의 문화적 유산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있다. 즉 페르시아, 투르크, 러시아, 인도 등의 문화적 요소가 타지키스탄에 역사적으로 흘러들어왔다.<sup>78)</sup>

타지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국민형성에 뒤쳐졌다. 독립 후 시도된 종족화(ethnicisation)가 국가의 내전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독립 직후 타지키스탄 북부 후잔트와 남부 쿨랍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친공산

78) 정세진, “타지키스탄 국가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징-시민적·종족적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2010), pp. 443-496.

보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개혁연합세력 (The United Tajik Opposition: UTO)간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반대세력의 핵심은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이었다. 내전의 원인은 독립 후의 경제 위기와 국가혼란이었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따른 이념적 공백이었다.

타지키스탄에서 씨족은 지역정체성에 기반을 둔다. 그 이유는 타지키스탄은 크게 페르가나 분지로 형성된 북부와 투란 저지대의 남서부(남부), 파미르 산지가 있는 동부로 나눌 수 있는데 북부와 남부는 산악으로 막혀있어 양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 시절 타지키스탄은 역사적인 타지크 민족의 도시에서 국가 발전이 도모되지 못하였고, 민족 정체성도 강력히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키스탄에서는 민족성보다 지역성이 더 강력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는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내전을 결과하였다. 소비에트 근대화 작업도 페르시아 문화보다도 더욱 더 투르크화 되거나 혹은 친소비에트 산업도시였던 코잔드 등에 더 집중된 것도 지역갈등을 더 조장하게 되었다.<sup>79)</sup>

타지키스탄 국민정체성 형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요소가 우즈베키스탄과의 역사적 갈등이다. 예를 들어 타지크인들은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여전히 타지크의 도시로 해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크문화권이고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문화권이긴 하지만 16세기 이후 타지크인들은 투르크문화권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우즈베크 족과 타지크족의 문화가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F.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정체성

투르크메이란 단어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11세기까지 유행한 어원에 따르면 이란어의 요소인 ‘manand’가 첨가된 투르크에서 유래되었고, ‘투르크인

79)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2호, 2007, pp. 268-270.

을 닮은' 의미이다. 반면에 현대학자들은 mam/men은 강의어로 말하고 있으며 '순수한 투르크'나 '투르크중에서 가장 투르크 같은'의 단어로 번역되었다고 설명한다.<sup>80)</sup> 투르크멘인은 약 8~9세기경에 몽골과 남부시베리아 근처에 살고 있던 돌궐족(고대 터키족)의 일부가 서진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강력한 돌궐제국의 토대를 형성하였으며, 투르크멘 종족은 약 9세기경 '투르크족의 땅'이라는 의미의 투르크메니스탄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한 오구즈 부족들이 '진짜투르크인'이라는 의미로 자신들을 투르크멘으로 불렀다.

국가성을 갖추지 못했던 투르크멘 종족들은 몽골과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거쳤으며, 북부지역을 장악했던 우즈베키스탄과 남부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제국의 영향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후 제정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던 그들은 1890년부터 1917년까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함께 제정러시아군의 점령지로 전락하였다. 소련 혁명 후에는 1924년 10월 27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독립 선언이후 국민형성의 과정은 정체성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동질적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국민형성 대신에 국민 부활(reviv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투르크멘 국민정체성은 1924년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형성에서야 비로소 근대적 이해에서 생겨났지만 그 이전의 역사적 국가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sup>81)</sup>

그러나 투르크멘 국민형성의 창시자는 소련이었다. 투르크멘 국민(Turkmen nation)이 형성된 것은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창

80) 김대성, 소련해체이후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 -, "한국중동학회논집" 제20집 (1)호 (1999), p.284.

81)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부하라와 히바 인민사회주의 공화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투르크멘 인들을 기초로 1924년 건국되었다.

설이후 스탈린의 국민 지위(nationhood)의 네가지 기준, 즉 언어의 통일, 영토, 경제, 역사적 문화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sup>82)</sup>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의 투르크멘 국민형성은 공고화되지 못하였다. 그 시기동안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여전히 동족결혼과 사투리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국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부족 연합(tribal confederation)이었다.<sup>83)</sup> 국민정체성과 부족정체성이 혼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이중성이었다. 한편으로 소련 정부는 투르크멘의 이슬람정체성과 투르크멘 종족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국민정체성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으나,<sup>84)</sup>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정체성을 제한했다.<sup>85)</sup> 이런 맥락에서 소련 정부는 진정한 투르크멘 가치관 대신에 러시아어와 문화를 촉진했고 민족주의자 연구와 운동을 금지했다.

따라서 독립 선언 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부족의 통합과 점진적인 사회·문화적 탈러시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국민형성을 노력하였다. 1990년 첫 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된 니야조프는 의회인 메즐리스(Mejlis)와 인민평의회인 할크 마슬라티(Halk Maslahaty)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10년 안정(10 Years Stability)’을 1992년 12월에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전신이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이 유일 정당이 되었다.

니야조프의 국민형성정책은 일차적으로 부족의 통합에 우선 초점을 두었다. 부족 정체성 특히 5대 부족인 테케, 요무트, 에르사리, 살리르, 사리크는 사회생활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

82) Chantel Lemerrier-Quellejay, “From Tribe to Umma,” *Central Asian Survey*, Vol. 12, No. 3, 1985, p. 21.

83) Alexander Benningsen and S. Enders Wimbush, *Muslims of the Soviet Empire: A Guide*(London: C. Hurst, 1985). pp. 95-98.

84) Nazif Shahrani,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 of the Soviet Legacy,” *Central Asian Survey*, Vol. 12, No. 2, 1993, pp. 128-131.

85) Kemal Karpat, ‘The old and new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Vol 12, No 4, 1993, pp 415 - 425.

에서 부족들 내 계층적 메커니즘과 리더십의 결여는 부족들의 현재의 정치적 역할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역사적 유산이었다. 테케 부족 출신이지만 고아 출신으로 부족 충성도가 크지 않았던 니야조프는 공유된 투르크멘 문화의 창조를 강조하였다.

쿠루(A. Kuru)는 투르크멘의 국민형성은 앤더슨의 설명에 많은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투르크멘 국민 정체성은 주어지고 고정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sup>86)</sup> 다시 말해 투르크멘 국민형성은 국가의 동질성과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권위의 중앙 계획에 의존하는 앤더슨의 공식 민족주의 모형(*official nationalism model*)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앤더슨이 서구의 국민형성의 모형으로 제시한 대중 언어 민족주의(*popular linguistic-nationalism*)는 아니다. 그가 강조했던 인쇄자본주의는 국가가 경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출판과 책 유통이 매우 낮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이다. 그러나 앤더슨의 분석은 국제적 문화 요인을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투르크멘 국민형성에서 러시아, 이슬람, 터키, 그리고 서구의 문화도 영향을 주었다. 투르크멘 정부는 점진적 탈러시아를 주요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가치관은 전통적 투르크멘 문화에 배태되어 있고 국민부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투르크멘 정부는 이슬람 문화의 발전을 지원했다. 터키와 서구 문화도 환영받았는데 그 이유는 터키문화는 투르크멘의 역사적이고 원형적인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고 서구 문화는 서구 문명에 적응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형성 과정 분석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국가-사회관계를 보여준다. 투르크멘 국가는 사회 정체성 형성을 선도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반면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투르크멘 국가는 부족들의 통합과 정치적 안정 유지에 성공적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장기

86) Ahmet T. Kuru, "Between the State and Cultural Zones: Nation Building 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1, No. 1, 2002, pp. 71 - 90.

적으로 질서를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 IV. 중앙아시아 국가의 자기정체성의 분석

### A. 원초적 정체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오랜 기간 지속적 국가성을 유지한 경험이 없었다.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에 의해 국경이 정해지고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독립 후의 국민과 역사적인 원초적 특성은 현재의 국민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 각 국 국민들은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페르가나라는 지역이 오히려 우즈베키스탄 국민정체성 공유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 후 중앙아시아에서는 원초적 특성으로부터의 자연적 진화에 의한 국민형성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밑으로의 국가주도의 국민형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수준의 국민과 하위 수준의 국민간의 갈등이 불가피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 사태나 타지키스탄의 내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두 차례의 혁명에는 이러한 지역 갈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 국 정부는 명칭민족의 국민형성의 주도화라는 종족화와 여타 민족의 시민으로서의 통합성을 지향하는 양면적 국민형성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갖는 국민 자부심으로 간접적 평가가 가능한 바 Asia Barometer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중일 평균인 84.5%보다는 조금 낮으나 중앙아시아 전체 국민의 80%가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보아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6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 국가자부심

	매우자부	약간자부	조금 없음	아주없음
카자흐스탄	52.7	36.0	8.7	2.6
타지키스탄	45.4	34.8	14.9	5.0
투르크메니스탄	54.2	23.5	10.5	11.9
키르기스스탄	54.7	34.9	8.7	1.8
우즈베키스탄	39.2	27.0	23.1	10.6
중앙아평균	48.8	32.0	13.4	5.8
중국	51.3	37.3	7.8	3.6
일본	33.7	46.4	18.4	1.5
한국	24.6	56.7	17.9	.8
한중일평균	40.2	44.5	12.9	2.4

<표 3> 중앙아시아 국가의 원초적 특성 통계

	민족	종교	언어
카자흐스탄	카자흐인 63.1, 러시아인 23.7, 우즈베크인 2.9, 우크라이나인 2.1, 기타(2009년)	이슬람 70.2(대부분 수니), 러시아 정교 26.2, 기타 5.6	카자흐어 64.4(공식어), 러시아어 95 (공용어)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인 80, 러시아인 5.5, 타지크인 5, 카작인 3, 카라칼팍 2.5, 타타르인 1.5, 기타 2.5 (1999년)	이슬람 88 (대부분 수니), 러시아 정교 9, 기타 3	우즈베크어 74.3, 러시아어 14.2, 타지크어 4.4, 기타 7.1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인 68.9, 러시아인 9.1; 우즈베크인 14.4; 기타(2007)	이슬람교 75, 러시아 정교 20, 기타 5	키르기스어 64.7, 우즈베크어 13.6, 러시아어 12.5, 둠간어 1, 기타 8.2 (1999년)
타지키스탄	타지크인 79.9, 우즈베크인 16.5, 러시아 1.1, 기타 2.5 (2000년)	수니파 이슬람 95, 시아파 이슬람 3, 기타 2	타지크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우즈베크어 25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인 85, 우즈베크인 5, 러시아인 4, 기타 6 (2003년)	이슬람 89, 러시아 정교 9, 기타 2	투르크어 72, 러시아어 12, 우즈베크어 9, 기타 7

중앙아시아와 한중일의 Asia Barometer 조사에서 한중일 조사에는 원초

적 정체성에 관한 조사 항목이 있으나 중앙아시아 조사에는 그 항목이 빠져 있어 대략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초국가적 정체성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원초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 30% 정도가 원초적 정체성에 기초한 국민정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 중일에서는 정체성 인식에서 원초적 특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 정도 되었다. 그 중에서 종교는 큰 의미가 없었고 언어와 종족이 각각 16.8%와 10.7%를 차지하였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원초적 특성에 따른 정체성 인식의 비율이 높았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어떠한 원초적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중일보다 종교의 비중이 더 클 것이지만 <표 9>에서 보듯이 정체성 요소에서 종교를 중요히 여기는 비율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어와 민족이 종교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에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초국가적 정체성을 갖느냐 여부는 아시아인으로의 정체성과 그 외 기타 국민정체성을 갖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시아인으로의 정체성은 중앙아시아가 54.5%로 한중일 35.3%보다 높았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기타 초국가적 국민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한중일은 거의 없지만 중앙아시아는 12.1%나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아시아가 역사적으로 국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종족의 범위와 국민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중앙아시아의 국민정체성과 초국가적 정체성

	카자흐 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키르기 스스탄	우즈베키 스탄	합계
아시아인	36.1	65.3	66.2	49.4	66.2	54.5
기타 초국가적 정체성	9.6	8.9	19.9	15.2	12.5	12.1
초국가적 정체성 없음	54.4	25.8	14.0	35.4	21.3	33.4

<표 5> 한중일의 국민정체성과 초국가적 정체성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아시아인		43.5	21.3	32.0	35.3
원초적 정체성	종족	6.8	8.1	20.8	10.7
	언어	12.7	9.0	32.3	16.8
	종교	1.9	1.2	6.4	2.9
기타 초국가적 정체성		0	1.4	0.2	0.4
집단정체성없음		35.1	59.1	8.3	33.9

일반적으로 국적으로 국민정체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중국, 일본, 한국은 명칭민족의 비율이 매우 높다. 소수 민족이 많은 중국의 경우는 국적정체성이 없는 비율이 15% 정도 되지만 일본은 6.6%, 한국은 1.3%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의 경우도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는 국적정체성이 없는 비율은 별로 높지 않다. 그러나 통계상의 민족 구성비와 국적 정체성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다. 통계상 키르기스인이 68.9%인 키르기스스탄과 79.9%가 타지크인인 타지키스탄은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가 유사하다. 그러나 통계상 카자흐인이 63.1%인 카자흐스탄은 카자흐 정체성을 갖는 비율이 47%로 낮았고 통계상 투르크인이 85%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투르크멘 정체성은 93.3%로 매우 높았다.

<표 6> 중앙아시아 국민의 국적으로 국민정체성 인식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47.0	키르기스	66.9	타지크	82.4	투르크멘	93.3	우즈벡	59.8
러시아인	33.5	러시아인	11.9	러시아인	1.8	러시아인	1.4	러시아인	11.1
우크라이나	4.5	우즈벡	9.9	우즈벡	14.1	우즈벡	3.3	타타르	5.6
국적정체성 없음	7.4	국적정체성 없음	6.5	국적정체성 없음	1.3	카자흐	0.9	국적정체성 없음	15.8

<표 7> 한중일의 국적의 국민정체성 인식

중 국		일 본		한 국	
중국인	84.4	일본인	92.9	한국인	98.7
국적정체성 없음	15.6	국적정체성 없음	6.6	국적정체성 없음	1.3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연령별로 보면 20~40대가 50~60대에 비해서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비율이 높아 초국가적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고 있고 기타 초국가적 정체성에서는 반대로 50~60대가 20~40대보다는 높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초적 특성도 50~60대가 20~40대보다는 높게 보이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초국가적 정체성은 늘어나고 원초적 특성은 줄어든 것으로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 중앙아시아의 연령별 국민정체성

	아시아인	기타 초국가적 정체성	초국가적 정체성 없음
20대	55.2	11.3	33.5
30대	57.0	12.1	30.8
40대	60.6	9.3	30.1
50대	45.8	13.9	40.2
60대	46.6	18.7	34.7
평균	54.7	12.1	33.2

(df=8, sig.=0.000)

원초적 정체성에서 종족 다음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슬람 정체성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이슬람은 매우 중요하다. 생활에서 신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8.08이었다. 서구 학자들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모두 이슬람 정체성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종교정체성이 종족정체성보다 더 강할 것이고 무슬림들은 본질상 반(反)소비에트가 될 것이고, 탈소비에트 무슬림들은 터키, 이란, 아랍세계와의 더

긴밀한 관계에 이끌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Asia Barometer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잘 못된 판단이다. 종교가 다른 원초적 요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사실상 탈소비에트 시기에 이슬람 정체성은 환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움이 되는 국가 평가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터키나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보다는 러시아와 인근 탈소비에트 국가들에 대해 우호적이다.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타지키스탄이 이란에 대한 호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종족 유대감을 갖는 터키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긍정적 평가는 각각 39.2%와 53.5%인데 반해 러시아에 대해서는 90%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을 예로 한 인근 국가 평가에서 71.1%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3.5%로 상대적으로 아직은 낮았다.

<표 9>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 요소

	합계	카자흐 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키르기스 스탄	우즈베키 스탄
종교가 민족보다 중요	16.1	6.8	28.6	7.0	18.6	18.8
종교가 지역보다 중요	15.5	3.8	25.4	7.4	18.8	22.1
종교가 언어보다 중요	13.9	2.9	21.4	7.5	15.9	22.0
종교가 계급보다 중요	12.7	6.1	19.8	1.1	12.5	23.9
종교가 국적보다 중요	16.4	6.8	23.5	7.4	20.5	23.9
종교는 정체성 요소의 하나일 뿐	21.0	32.5	19.3	5.8	28.1	19.4

&lt;표 10&gt; 도움이 되는 국가 평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합계
러시아	82.8	95.4	82.0	91.8	93.2	89.8
중국	34.8	71.2	79.1	36.1	47.4	50.7
일본	45.1	51.5	75.8	39.3	61.4	51.8
한국	28.6	19.6	90.1	26.8	75.7	43.5
미국	25.4	58.7	77.2	37.7	35.9	43.8
카자흐스탄	×	61.5	81.1	77.7	64.2	71.1
이란	12.3	85.1	63.9	17.3	21.4	39.2
터키	44.7	58.3	68.9	49.1	52.7	53.5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의 재식민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수준이 반러시아 정서에 반영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소비에트 이전시기에 중앙아시아인들에게 가장 현저한 정체성은 이슬람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정체성이 약화된 것은 중앙아시아 무슬림은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적 성격이 강한 때문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 정체성은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광범하게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소비에트 시절 이슬람 억제 정책도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에 대한 정서가 여전히 긍정적인 이유는 소비에트 시절 차별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근대화에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중앙아시아인들은 단절과 굴복을 경험했으나 소비에트 문화에 특히 적대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원초적 정체성 요소 중 분석되어야 할 요소에는 언어정체성도 있다. 통계상으로는 러시아어가 카자흐어보다도 많이 사용되는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러시아인 비율보다 러시아어 사용비율이 다소 높고 나머지는 민족 비중과 언어 사용이 대체로 유사하다. 명칭민족들의 언어 사용을 보면 민족어

사용자와 민족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비율이 대체로 7:3이고 카자흐인의 경우만 4:6 정도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가 더 많다. 중앙아시아 모두 민족어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카자흐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국민정체성에 언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용 언어는 다양한 터키 언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자국어와 민족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러시아어가 오랜 동안 공식어로 사용되어 언어와 민족주의와의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대외관계를 보더라도 언어적 연계성이 강한 중앙아시아와 터키간,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이란간 민족정체성 공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표 11> 중앙아시아 민족의 언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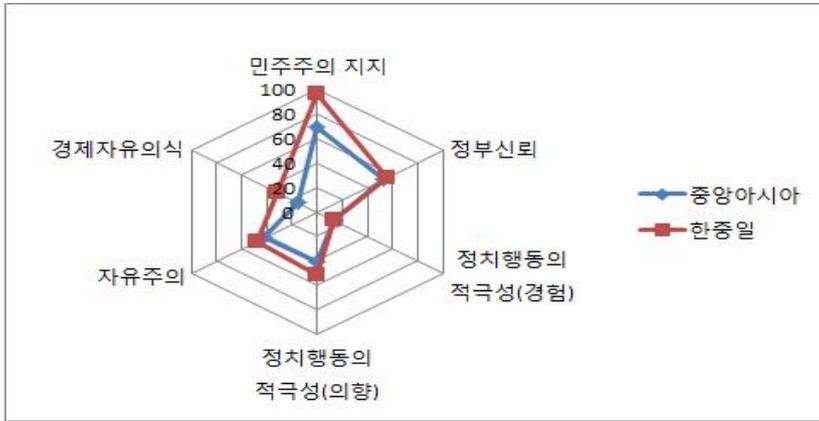
	민족어만 사용	민족어+러시아어	러시아어만 사용	러시아어+민족어
카작인	36.94	60.05	0.25	2.13
카르기즈인	63.43	34.40	0.10	1.17
우즈베크인	74.96	23.36	0.17	0.86
타지인	70.79	26.93	0.17	1.20
투르크멘인	71.05	27.48	0.10	1.02

### B. 소비에트 정체성

중앙아시아의 국민형성의 가장 중요한 방향의 하나가 탈소비에트 또는 탈러시아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덕에 근대화 과정을 이루었으며,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인의 호모 소비에트쿠스화 정책에 오랜 영향을 받은 중앙아시아로서는 국민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전히 소비에트 정체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비에트 정체성의 배태적 유산을 파악하려면 민주화와 시장화의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주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의식화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가능할 것이다.

[그림 4] 중앙아시아와 한중일의 정치·경제의식 비교



Asia Barometer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중앙아시아의 탈소비에트 정도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와 정부 신뢰, 그리고 정치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정치행동의 적극성 정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 의식, 그리고 시장경제적 가치관의 기본적 요소인 경제자유주의 등을 분석해 보면 [그림 4]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한중일에 비해서도 낮다. 특히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기본적 의식인 민주주의와 경제자유에 대한 의식은 한중일에 비해 매우 낮다.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서구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불안정하며 90년대 이후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USAID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통치 지수’<sup>87)</sup>를

87) USAID가 개발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통치 지수(index of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이하 GJD는 Freedom House의 민주화 지수 중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그리고 미디어 독립성 등 3변수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중 법치와 부패 통제 그리고 정부 효과성 등 3변수 등 6변수를 1에서 5점으로 표준화한)를 개발하여 민주적 자유와 통치의 질을 모두 고려하는 평가 지수임.

보면 중앙아시아의 평균은 1.64로 세계에서 제일 낮으며 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2.26, 12개 유라시아 국가의 평균 1.96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EIU의 민주화 평가를 보면 <표 12>에서 보듯이 레몬혁명을 거친 키르기스스탄이 합성체제의 평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다소 높고, 나머지 4 개국은 모두 권위주의의 평가를 받았고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평가가 매우 낮다.

<표 12> EIU의 2008년 민주화 평가

	순위	전체점수	선거과정/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카자흐스탄	127	3.45	2.67	2.14	2.78	4.38	5.29
우즈베키스탄	164	1.74	0.08	0.79	2.22	5	0.59
키르기스스탄	114	4.05	4.83	1.86	3.89	4.38	5.29
타지키스탄	150	2.45	1.83	0.79	2.22	6.25	1.18
투르크메니스탄	165	1.72	0	0.79	2.22	5	0.59
중앙아 평균	144	2.68	1.88	1.27	2.67	5.00	2.59
전체 평균		3.67	4.44	2.23	3.88	4.42	4.81

자료: EIU의 민주화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 자유 등 10점 만점의 5개 항목을 평가하여 그 평균 점수로 민주화 지수를 산출하며 점수가 클수록 민주적임을 의미한다. 8-10점은 완전 민주주의, 6-7.9점은 결합 민주주의, 4-5.9점은 합성체제, 4점이하는 권위주의를 의미한다.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식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의회의 통제도 받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62.5%로 한국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히 높아 97.2%에 이른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개발독재에 친화적이다. 당연해 보이는 민주주의 지지도 68.8%로 다소 낮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 34%로 특히 낮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더라도 58.9%로 한국의 96.2%에 비하면 매우 낮다.

<표 13> 중앙아시아 국민이 선호하는 체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합계
강력한 지도자	33.5	65.0	97.2	60.5	32.7	62.5
관료정치	67.5	73.1	0	76.3	60.9	55.3
군사정부	17.8	41.7	0	37.2	10.2	20.8
민주적 정치 시스템	78.7	68.4	34.0	82.2	74.6	68.8

<표 14> 한중일 국민이 선호하는 체제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강력한 지도자	16.4	51.3	57.5	34.7
관료정치	88.2	67	81.0	81.5
군사정부	53.2	14.4	18.0	37.8
민주적 정치 시스템	94.2	94.3	91.5	96.2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신뢰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평균 53.1%로 60.65%인 한중일 보다는 낮으나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수평적 책임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 수준은 49.8%로 다소 낮았다. 전반적으로 제도 신뢰에 대한 점수가 기대보다 높은 이유는 이 설문조사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져 솔직한 응답을 하기 어려워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 기관이 평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성과 지수를 볼 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보아 국가성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으나 국가관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도 신뢰 수준이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표 15> 중앙아시아의 제도 신뢰수준

		카자흐 스탄	타지크 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키르기스 스탄	우즈베키 스탄	합계
정부	중앙정부	69.8	73.7	84.3	50.4	55.8	65.4
	지방정부	53.2	49.0	88.1	46.6	46.5	54.9
	군	71.2	55.3	77.3	64.9	66.2	66.4
	법시스템	51.1	59.4	74.7	44.4	46.2	54.1
	경찰	32.7	31.7	43.4	38.1	36.4	36.3
	의회	60.7	58.4	75.5	48.3	50.9	57.9
	정당	38.3	27.0	97.6	32.8	27.9	33.8
	교육	71.3	44.8	35.4	69.3	56.8	55.8
기업	보건	65.9	39.8	52.1	61.7	46.7	53.4
	대기업	49.4	38.5	76.5	44	45.2	47
사회조직	노조	37.5	35.2	78.5	28.6	26.6	42.3
	미디어	62.6	65.2	74.2	32.5	32.5	58.2
	NGO	43.4	51.3	83.6	53.1	28	47
	종교조직	70.3	59.8	44.8	55.3	50.8	51.8
국제조직	다국적기업	44.9	57.8	84.1	59.4	62.8	56.7
	UN	45	83.6	67	74.6	68.1	73.4
	WTO	66.7	55.3	0	63.4	59.7	49.2
	세계은행	66.5	59.1	75	66.1	62.2	63.7
	IMF	66.6	58.5	0	65.5	62.2	37.4

<표 16> 한중일의 제도신뢰 수준

		중 국	일 본	한 국	합 계
정부	중앙정부	85.5	42.4	20.1	58.3
	지방정부	60.8	54.7	22.1	49.5
	군	81.8	63.6	52.9	70.0
	법시스템	65.1	59.8	34.7	56.1
	경찰	64.8	59.0	40.4	57.1
	의회	72.0	31.3	8.0	45.6
	정당	72.4	24.5	7.7	44.1
	교육	72	61.1	39.4	61
대기업	보건	44.9	65	53.9	52.2
	대기업	60.7	47.5	39.5	52
사회조직	노조	54.9	31.4	25.4	41.8
	미디어	51.8	40.5	26.8	42.7
	NGO	41.7	35.9	34.4	38.4
	종교조직	46.9	57.4	48.6	49.9
국제조직	다국적기업	33.1	15.5	38.1	30
	UN	65.5	50.6	43.3	56.1
	WTO	69.9	50.6	35.1	56.8
	세계은행	74.8	45.9	32.5	57.7
	IMF	68.1	46.8	34.1	54.7

&lt;표 17&gt; 중앙아시아의 국가 성과 평가

	평화재단 실패국가 지수(2005) <sup>1)</sup>	BTI 성과지수 (2003) <sup>2)</sup>	EBRD 전환평가(2008) <sup>3)</sup>
러시아	83.5	5.5	2.67
카자흐스탄	78.3	3.3	2.67
우즈베키스탄	93.2	1.5	1.67
키르기스스탄	80.4	3.4	1.67
타지키스탄	86.7	3.3	1.33
투르크메니스탄	76.5	1.0	1.00

- 1) 평화재단(Fund for Peace)의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 Index)는 사회 지표 4개, 경제 지표 2개, 정치 지표 6개 등 총 12개의 지표로 각 지표당 10점 만점에 총점은 120점이 고 점수가 클수록 실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함. 여기서 그루지야, 몰도바, 아르메니아는 2006년 점수임.
- 2) BTI 성과지수(Management Index)는 국제협력, 합의도출, 자원효율, 조정능력 등 4개 지표로 측정하며 10점 만점에 점수가 클수록 성공적임을 의미. 여기에서 7.20 이상은 성공적, 6.2이상은 약점을 가진 성공적, 4.89이상은 중간, 3.82이상은 약함, 2.24이상은 실패국가임을 의미함.
- 3) 1에서 4점으로 평가하며 +0.33, -0.33할 수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임.

민주주의 발전의 의식 수준에 평가해야 할 또 하나는 자유주의 의식이다. 소비에트 체제의 경험 기간이 긴 중앙아시아에서 자유주의 의식 수준이 배태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유주의 의식은 크게 자유적 사회 의식과 경제적 사회의식을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자유적 사회의식을 평가하는 지표로 동성애, 낙태, 성평등에 대한 허용 수준을 평가해 보았을 때 이 3항목 평균은 중앙아시아는 41.9%로 한중일의 48.3%보다 낮았다. 국가별로 보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었다. 자유주의 평가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 의식일 것이다. 사적 재산에 대한 보호와 경제성장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식은 향후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오래 경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전형적인 소비에트 특성은 경제평등 의식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이 지체되어도 경제평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설문에 대해 평균 찬성율이 74.3%로 한중일의 29.3%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한동안 소비에트 경제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준다.

<표 18> 중앙아시아의 자유주의 의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합계
동성애 허용	24.3	28.5	10.1	22.6	20.6	21.2
낙태 허용	42.7	40.7	19.5	38.4	40.7	37.0
성평등	73.1	74.4	54.2	80.7	52.1	67.5
평균	46.7	47.9	27.9	47.2	31.8	41.9

<표 19> 한중일의 자유주의 의식

	중국	일본	한국	합계
동성애	23.9	47.3	25.2	29.8
낙태	40.2	46.2	38.4	41.2
성평등	78.5	65.2	73.3	73.8
평균	47.5	52.9	45.6	48.3

<표 20>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보다 경제적 평등 우선에 관한 견해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찬성률
카자흐스탄	25.8	49.7	9.2	14.9	0.4	75.5
타지키스탄	33.5	49.8	11.1	5.4	0.3	83.3
투르크메니스탄	23.5	25.8	24.2	10.3	16.2	59.3
키르기스스탄	27.5	49.0	10.0	11.7	1.8	76.5
우즈베키스탄	21.5	55.3	8.2	14.1	0.9	76.8
합계	26.4	46.5	12.2	11.3	3.6	74.3

<표 21> 한중일의 경제성장보다 경제적 평등 우선에 관한 견해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찬성률
중국	5.5	17.1	41.4	31.2	4.9	22.6
일본	3.8	22.6	51.7	19.9	2.0	26.4
한국	6.6	32.2	26.0	29.3	5.8	38.8
합계	5.4	22.2	40.0	27.9	4.4	29.3

민주적 체제 발전에 또 하나 평가해 볼 것은 정치적 행동의 적극성이다. 정치적 행동의 적극성은 경험과 의향으로 나누어 평가해 볼 수 있다. 청원권, 보이콧 참여, 법적 시위 참여 등 3 가지 척도나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정치적 행동의 적극성은 평균 13.2%로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한중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치적 행동의 미래를 평가하기 위한 의향 분석에서는 40.6%로 한중일의 52.6%보다 낮았다.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22>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행동의 적극성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합계
청원권	38.8	31.8	17.7	33.4	7.4	25.9(53.5)
보이콧 참여	7.1	3.1	2.8	8.8	0.8	4.6(29.0)
법적 시위참여	16.4	5.4	2.0	17.0	4.0	9.2(39.3)
평균	20.8	13.4	7.5	19.7	4.1	13.2(40.6)

( )는 의향을 나타냄

<표 23> 한중일의 정치적 행동의 적극성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청원권	6.1	45.3	31.9	27.8(52.8)
보이콧 참여	2.1	2.3	11.5	4.6(51.2)
법적 시위참여	4.8	4.5	11.3	6.9(50.8)
평균	4.3	17.4	18.2	13.1(51.6)

( )는 의향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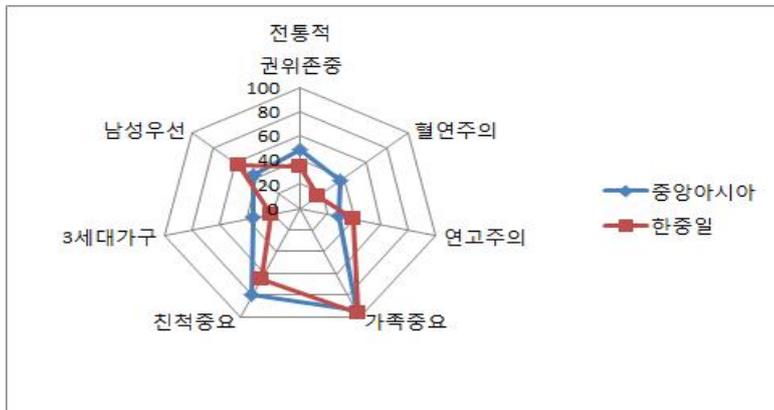
체제 전환을 거치면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에 대한 온정적 견해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 권위주의가 고착된 보다 본질적 원인은 권위주의적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 학습을 경험하지 못해 민주적 의식을 미약한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 체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62.5%나 되고 민주적 정치 시스템에 대한 지지가 68.8%에 불과한 것은 중앙아시아가 여전히 소비에트 유산을 안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특히 경제평등 우선이라는 소비에트 정신이 여전히 74.3%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중앙아시아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소비에트 정체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 C. 전통적 정체성

중앙아시아는 씨족 중심의 전통을 갖고 있다. 유목민족과 정주민족의 혼재와 교류 속에서 발전해 온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시절에도 공업보다는 농목축업 중심의 사회구조를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중심, 혈연주의, 연고주의, 가부장주의 등이 아시아의 전통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와 한중일은 전통성을 공유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그림 5]에서 보듯이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적 전통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대체로 한중일과 유사하나 한중일보다는 전통적 특성이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전통적 권위 존중이 필요한 가의 설문에 대해 중앙아시아 국가는 5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한중일 평균 35.7%보다 훨씬 높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전통적 권위의 존중 필요성 수치가 낮은 것은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 체제에서 중립국을 선언하고 독자적 노선을 강조하고 새로운 투르크멘 정체성을 국가가 내세우면서 국가주의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5] 중앙아시아와 한중일의 전통성 비교



<표 24> 전통적 권위 존중의 필요성

카자흐	타지크	투르크멘	키르기스	우즈베크	중앙아 평균	중국	일본	한국	한중일 평균
63.9	53.5	39.0	59.4	51.6	53.9	33.0	15.3	59.9	35.7

혈연중심주의를 평가하기 위해 대를 잇기 위한 양자의 필요성 항목을 분석해 보면 중앙아시아 평균은 36.7%로 한중일 평균 15.4%에 두 배 이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40%를 넘는다.

<표 25> 혈통을 잇기 위한 양자의 필요성

	카자흐	타지크	투르크멘	키르기스	우즈베크	중앙아 평균	중국	일본	한국	한중일 평균
필요	34.7	35.2	13.6	53.0	40.9	36.7	19.2	7.3	16.0	15.4
불필요	20.6	19.8	66.9	9.7	11.2	23.3	28.7	42.5	44.4	36.1
상황적	44.7	45.0	19.5	37.3	47.9	40.0	52.2	50.2	39.5	48.5

중앙아시아는 분화가 덜 된 전통적 사회의 특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 가족이나 친척, 성장지 같은 1차사회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 클럽이

나 취미서클, 노조, 정당처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2차사회를 중요시 여기는 수준은 아직 낮다. 가족과 친척을 중요시 여기는 비율은 중앙아시아가 86.9%로 80.7%의 한중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성장지의 중요성 평가도 중앙아시아는 33.6%이고 한중일 평균은 28.1%였다. 반면에 직장의 중요성 평가는 중앙아시아가 36.3%로 한중일의 49.2%보다 낮았으며 클럽 및 취미서클의 중요성도 중앙아시아는 3.5%이고 한중일은 19.5%였다. 특히 정당의 중요성 평가는 0.8%에 불과했고 이는 한중일의 5.6%보다 매우 낮았다.

<표 26> 중요한 사회집단

	중앙아시아	한중일
가족	94	96.1
친척	79.7	65.3
직장	36.3	49.2
클럽, 취미서클	3.5	19.5
학교	9.5	15.8
성장지	33.6	28.1
동일언어 또는 방언 사용자	11.2	16.4
이웃	26.1	40.3
농업조합, 상업조합 또는 산업집단	1.5	4.6
노조	1.1	3.1
정당	0.8	5.6
종교	17.1	8.2

씨족사회인 중앙아시아에서 보이는 특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연고주의 일 것이다. 그러나 연고주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인 취업 면접시 친척을 우대할 것인가에 관한 설문에 대해 중앙아시아는 평균 28%로 한중일 평균 38.6%보다 낮게 나왔다.

<표 27> 취업 면접시 친척 우대

카자흐	타지크	투르 크멘	키르 기스	우즈벡	중앙아 평균	중국	일본	한국	한중일 평균
33.7	41.2	14.4	22.2	26.3	28.0	38.4	44.3	33.7	38.6

전통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가족 구조일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평균 가족 수는 4.77명으로 한중일의 평균 가족 수 3.63명보다 많았다. 가족 구조에서도 2, 3세대가 같이 사는 가구 비율이 중앙아시아가 한중일보다 높았다. 부모와 기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은 중앙아시아가 16.5%로 한중일의 9.4%보다 높았고 조모, 부모, 자녀 등 3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도 18.8%로 한중일의 12.4%보다 높았다.

<표 28> 가족 구조

	카자흐	타지크	투르 크멘	키르 기스	우즈벡	중앙아 평균	중국	일본	한국	한중일 평균
단독가구	6.6	10.8	2.8	6.3	4.3	4.2	3.6	10.5	5.5	5.8
부부	11.3	1.0	5.2	5.0	5.6	5.6	11.7	16.2	11.2	12.7
부모와 미혼자녀	54.9	44.2	55.2	54.5	56.0	53.0	53.1	51.3	68.9	56.7
부모와 기혼자녀	12.6	36.6	15.6	10.9	7.1	16.5	14.7	4.9	3.5	9.4
조부, 부모, 자녀	13.4	17.0	19.3	19.9	24.4	18.8	13.5	14.4	8.5	12.4
기타	1.3	0.5	1.9	3.5	2.6	2.0	3.5	2.6	2.4	3.0

## V. 결 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형성 과정은 1924년 스탈린의 민족정책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탈린의 민족정책은 중앙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국민들이 정체성과 정서를 갖도록 유도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부터의 민족 접근은 원시적 공동체에서 현대적 민족국가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전환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비에트 국가에 의해 형성된 러시아화에 기초한 국민정체성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관습과 믿음, 즉 그들 자신의 문화 정체성 보존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자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지배적 민족집단에 기초한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스탈린식 민족정책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정부가 정의한 민족주의 시각에 따라 국민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새로운 문화와 전통, 새로운 국가 상징들이 도입되었고 국가 역사도 새로 쓰였다. 그러나 국민 범주의 합의는 밑에서 위로도 진행이 되어야 하며 씨족 정치와 국민 정체성 형성은 서로 반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오랜 기간 지속적 국가성을 유지한 경험이 없었다.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에 의해 국경이 정해지고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독립 후의 국민과 역사적인 원초적 특성은 현재의 국민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분석결과 중앙아시아의 원초적 특성은 약 30%로 그리 크지 않고 한중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중앙아시아 국민들은 주변 국가의 초국가적 정체성을 갖는 정도가 한중일보다는 크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여전히 민족갈등의 위험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아시아인이라는 보편적 초국가적 정체성은 늘어나고 원초적 특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슬람정체성은 큰 영향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민정체성 형성의 제일 중요한 방향은 탈소비에트화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탈소비에트 정도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와 정부 신뢰, 그리고 정치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정치행동의 적극성 정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 의식, 그리고 경제적 가치관의 기본적 요소인 평등 의식 등은 전반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한중일에 비해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가족중심, 혈연주의, 연고주의, 가부장주의 등이 아시아의 전통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와 한중일은 전통성을 공유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적 전통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대체로 한중일과 유사하나 한중일보다는 전통적 특성이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화는 종족정체성과 부족정체성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돌리려 했지만 실상은 그것들을 정치화시켰다. 근대화는 근대적 국가권력을 지방 공동체로 깊이 침투시켰지만 중앙국가의 정체성 문제의 개입은 이전의 지방 갈등을 국가수준으로 상승시켰다. 소련 시절 중앙 권력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특정 부족이나 종족 집단에게 지방 행정 권력을 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 이후 탈식민 권력 엘리트들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확대하려 했을 때 지방의 저항에 부딪혔다.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지방수준의 정체성 정치였던 것이 독립이후에는 국가적인 정체성 정치가 된 것이다. 종족 민족주의는 종족 간 불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씨족 족벌주의를 활성화할 위험이 있음을 중앙아시아는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정부가 명칭 민족의 민족 주권을 대표함과 동시에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가 국민국가로서 성공적인 국민정체성 공유의 열쇠가 될 것이다.

[논문투고일: 2011. 04. 15]

[심사의뢰일: 2011. 04. 19]

[게재확정일: 2011. 05. 02]